

# 광주 사회적경제 기업 맞춤형 지원... 132억원 투입

## 인프라 구축·인재육성·판로확대 국시비 투입 6대 전략 26개 사업 혁신타운 조성...부지매입 '순조'

광주시가 올해 사업비 132억원을 투입,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광주시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 총 사업비 132억원(국

비 83억원·시비 49억원)을 투입해 △협치와 연대경제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과 자원발굴 △판로 확대와 사회적 소비 활성화 △전략분야 강화 선도사업 발굴·육성 △홍보와 국내외 네트워킹 강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등 6대 전략 26개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창업초기 교육·컨설팅부터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특허출원 인증,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 정책자금 지원 등 14개 사업에

99억7900만원을 투입한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정책 수요가 가장 높은 판로개척과 사회적경제 인지도 확산을 위해 공공구매 공시제와 판로지원단 운영, 온·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홍보체험단 운영, 제2회 광주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네트워크·공유 기반 연대활동 지원 등 10개 사업에 4억4900만원을 투입한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과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ESG경영 실천을 위한 친환경 포장재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 사업은 매년 10명의 장학생을 선발, 사회적경제 대학

원 과정(석사) 수업료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올해 전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상황, 정책만족도, 정책수요 등을 전수조사해 미래 지속가능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도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280억원 규모의 광주역 창업벨트 조성 사업과 연계된 것으로, 사회적경제의 창업·연구개발(R&D)·교육·네트워킹·혁신 등을 통합지원하는 거점공간이다. 혁신타운은 4월 부지 매입이 끝나면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 말 모습을 드러낸다.

광주시는 혁신타운 조성사업에 맞춰 준비기획단과 민관협치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들 조직은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간 배치, 장비 구축 등을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프로그램 기획, 운영체계 구축 등을 담당한다.

최대범 광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신규로 사회적경제 정책자금과 대학원 학자금 지원, 친환경포장재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양한 모델을 발굴해 창업 활성화는 물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지 기자

## 전남도, 싱가포르·말레이시아서 해외 판로 개척

### 문금주 부지사 6일간 해외 방문 현지시장 점검·수출 기업 지원

전남도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세계로 뚫어주는 전남 대외 실현을 위한 글로벌 도정 행보에 나선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중소기업·수출기업 수출 상담회, 농수산물 수출 업무협약,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먼저 문 부지사는 2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시장 개척 수출 상담회에 참석해 참가 기업을 격려한다.

수출 상담회에는 ㈜디엠티, 보향다원, 안도담 등 도내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15개사가 참여한다.

이어 한국식품유통 전문기업으로 싱가포르에 공급체인을 확보한 LNC사와 농수산물 수출협약을 한다.

전남도는 향후 상설판매장 개설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22일에는 케이(K)-스타트업센터싱가포르를 방문해 전남 기업이 해외 진출 시 케이(K)-스타트업 지원사업과 해외 진출 전략 방안을 청취할 예정이다.

센터에는 영암에 본사를 둔 빈센 업체를 포함해 총 12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문 부지사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인회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수산물 수출과 무역, 현지 시장 개척을 위해 도움을 준 동포를 격려하고 25일 귀국한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복합위기로 기업 활동이 많이 위축됐다"며 "새로운 해외 판로를 개척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안정적인 판매처를 구축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창지 기자



북구, 지산딸기 출하 성공 기원제

북구 문인 북구청장과 김형수 북구의회의장, 전광희 지산딸기 작목회장, 구상봉 북광주농협조합장 등이 지난 18일 북구 용강동 지산딸기 집하장에서 열린 지산 딸기 작목회 한마음행사에서 지산딸기 출하 성공 기원제를 올리고 있다.

나건호 기자

광주 문인 북구청장과 김형수 북구의회의장, 전광희 지산딸기 작목회장, 구상봉 북광주농협조합장 등이 지난 18일 북구 용강동 지산딸기 집하장에서 열린 지산 딸기 작목회 한마음행사에서 지산딸기 출하 성공 기원제를 올리고 있다.

## 여수·고흥 드론 실증도시 공모 선정... 국비 25억 확보

### 시·군 특화 드론 활용 모델 발굴 '미래형 운송기기 중심' 실현 탄력

전남도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의 '드론 실증도시' 공모사업에 여수시와 고흥군이 선정돼 국비 25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시군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을 발굴해 국토부에 제안하면 산업용 드론 육성 및 활용 서비스 모델에 적합한 사업에 국비 지원을 받아 연구 및 실증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여수시는 국비 11억원, 고흥군은 국비 14억원을 각각 확보했으며 전남도가 추진하는 '미래형 운송기기 중심, 전남' 실

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여수시는 ㈜해양드론기술, ㈜무지개연구소, ㈜스카이포츠-K 등 3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여수 화정면 개도리 등 일원에 △드론배송경로(섬-섬, 섬-육지) 실증 △드론 배송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고흥군은 전남테크노파크, ㈜대한항공, 마리노보틱스(주), 피앤유드론, ㈜천풍, ㈜날다 등 7개 기업·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고흥 도양읍 봉암리 등 일원에 △드론활용 사회안전망시스템 실증 △긴급 의료 물품 배송 실증 △현장밀착형 생활 안전 모니터링 실증 △인공지능(AI) 기반 유해조수 퇴치 실증에 나선다.

전남도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이미 추진 중인 드론 분야 실증 및 기술개발 사업을 연계해 기업 수요 창출과 상용화 등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참여 기업에 전남에 구축된 드론 인프라를 제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지식산업센터, 드론 특화산업 입주기업 유치 활동에도 적극 나서 전남을 차세대 드론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중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장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 기업 우수 기술과 드론 모델 실용화 및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미래비행체 산업을 선도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창지 기자

## 전남도, 출향청년 기업 탐방 및 취업 특강 운영

###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사업 우수기업 견학·채용 질의응답 등

전남도와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 18일까지 이틀간 수도권 출향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출향 청년 기업 탐방과 취업 특강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 남도학숙에서 생활하는 출향 청년 20명이 참여해 도내 우수기업인 포스코 광양제철소, 국내 최대 내화물 생산기업인 ㈜조선내화, 화학전문기업인 ㈜TKG휴켄스를 현장 견학하고 채용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했다.

출향 청년 기업 탐방 및 취업 특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지역

기업-청년 희망이음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기업 탐방 외에도 직무 관련 교육과 면접 특강을 운영해 출향 청년의 취업 준비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추진했다.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사업'은 일하기 좋은 우수 기업을 발굴해 소개하고 지역 청년과 기업 간 취업 연계함으로써 청년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와 전남테크노파크는 그동안 '희망이음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학생 731명을 대상으로 도내 34개 기업 탐방과 취업캠프 운영, 기업과 지역 간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기업 실무 패키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취업 연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최창지 기자

## 광주 마한유적체험관, 상반기 체험프로그램 운영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2023 마한유적 체험관 상반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체험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지난 12월 국가사적지인 신창동 유적 내 문을 연 마한유적체험관은 지역 초기 마한 문화와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의 분관으로 운영 중이다.

프로그램은 유아(5~7세)를 대상으로

한 △신기한 보물수레 이야기 △신창동 유물역사 꾸미기 등이 있다. 프로그램은 21일부터 6월30일까지 운영한다.

4월8일부터 6월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창동 토기제작공방 '구멍 송송 토기 시루 만들기' △나는 신창동 디자이너 '마크 라메 리스 만들기' 등을 운영한다.

유아 대상 체험은 무료이며, 초등학생과 성인 대상 체험은 별도의 재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박상지 기자

## 옛 전방·일신방직 국제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 덴마크사 '모두를 위한 도시'

광주 북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 국제설계공모에서 덴마크 건축 설계회사 '어반 에이전시'의 작품이 선정됐다.

광주시는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개발을 위한 국제지명초청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어반 에이전시(덴마크)의 '모두를 위한 도시(City For All)'가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제해성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국내 권위 있는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는 지난 17일 국제지명 설계공모에 출품한 국내외 8개 작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같이 확정했다.

당선작 '모두를 위한 도시(City For All)'는 환경적·경제적·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이내 생활기반에 접근할 수 있는 '15분 도시'라는 새로운 도시 계획 개념을 적극 반영했다.

또 'Green Network'로 명명된 내부 순환로를 통해 주요 거점시설을 연계하고 단계적 개발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까지 두루 갖춘 계획안이라는 평가

를 받았다.

설계공모 당선자에게는 랜드마크 타워의 계획설계권이 부여되고, 나머지 초청사에는 1억원의 참가보상비가 지급된다.

광주시는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결과를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개발 사업계획에 반영해 오는 7월까지 부지개발 사업자인 ㈜휴먼스튜디오스피에프비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제지명초청 설계공모 당선작을 포함한 출품작(총 8건)은 공모전 공식홈페이지(<http://www.ji-cd.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일부터 24일까지 시청 1층 시민숲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박상지 기자